

##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위한 기호론적 접근

이영남\* · 조민지\*\*

1. 기록방법론, 논의 필요성과 방향
  - 1) 논의 필요성
  - 2) 논의 방향
2. 기호의 등장
3. 사물과 기호
  - 1) 사물이 관계하는 방식
  - 2) 사물과 기호의 의미화와 발견과정
4. 기호학적 방법론
  - 1) 기호학의 체계와 의미
  - 2) 기호학적 방법론
5. 기호실천의 함의
  - 1) '커피테이블'
  - 2) 새로운 기록픽션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교수. 주요 논저 :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푸른역사, 2007; 「기록의 전회 :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기록학연구』 제40호, 2014; 「기록의 역운 :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 『기록학연구』 제39호, 2014; 「상징아카이빙 :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38호, 2014.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주요 논저 :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제39호, 2014;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0호, 2009.

■투고일 : 2014년 6월 28일 ■최초심사일 : 2014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7월 21일

## [국문초록]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 외부에서 다양한 기록실천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을 가지고 진행되는 구술아카이브, 커뮤니티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 문화자원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등이나 담론 실천적 성격의 포스트모더니즘 아카이브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흐름을 ‘일상패러다임’으로 정리한 후, 여기에 적합한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호론적 접근을 취하면서 기록방법론의 필요성과 방향,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기호학적 방법론을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록현장에서 기호실천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례라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록방법론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기록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일상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액티비즘, 포스트모더니즘, 기호, 기호작용, 기호학

### 1. 기록방법론, 논의 필요성과 방향

#### 1) 논의 필요성

기록학은 기록 이론, 방법론, 실무가 같이 어우러져 구성된 학문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현장을 갖고 역사, 실무, 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기록학은 경험적 복합학문이다. 행정학, 문헌정보학은 물론이고 고문서학

에서 인류학, 문화학, 문학, 정보기술 등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여러 학문을 넘나들며 연구가 펼쳐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도 아카이브를 비롯한 텍스트에서, 권력, 증거, 기억, 문화, 윤리, 정체성, 신뢰성, 진본성과 같은 사회의 구성, 그리고 생산, 다큐멘팅, 재현, 검색과 같은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고 다양하다. 그것은 또한 기록방법론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기록 관리와 의미, 진본성 등에 관해서는 고문서학방법론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매뉴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성찰까지도 다룰 수 있었다. 특히 기능적 업무 흐름이나 업무시스템 개발, 시스템 평가에 있어서는 시스템분석방법론을 따른다. 이를 통해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 Keeping System)와 같은 결과물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용자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실제 기록현장의 서비스 평가와 개발을 도모하고 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때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방법을 따른다. 인류학적 접근은 또한 기록의 고고학, 기록의 인류학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문화인류학방법론은 라포(rapport)등을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록의 의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표준으로 격자화 할 수 있지 않는,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과정이었다. 특히 총체적 접근을 통해 개별 문화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보다 개별적 맥락, 특히 문화와 관습에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론적 접근에 패러다임이 가능하게 했던 데는 기록학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컸다. 절대 진리로 믿었던 기록생애주기에서 탈피하여 기록연속체론(Records Continuum)을 밝힌 프랭크 업워드(Frank Upward)를 위시한 일군의 학자들은 기록학문의 이론적 발전과 성찰을 위해 인식론적 배경의 이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sup>1)</sup>

---

1) Ann Gilliland, *Enduring Paradigm, New Opportunities: The value of the Archival*

매우 소략하게나마 기록방법론을 중심으로 기록학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런 흐름을 관통하는 특징을 짚아보자면 ‘사물(매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방법론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5년, 국내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기는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의 전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DIRKS, 기록연속체론 등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은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 문화인류학은 인간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학문이고, 문화인류학의 질적 방법론은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물(매체)의 변화와는 다른 흐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새로운 배치전략에 대한 천착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구술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 문화자원 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y) 등은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했으나, 아직은 방법론적 성찰과 천착으로까지 논의를 이끌어가지는 못한 것 같다. 왜 굳이 뚜렷한 기록방법론으로 이런 흐름들을 봐야 할까? 그것은 이런 흐름들의 특징은 공공기관 내부의 공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주목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이해는 공공기관의 공적 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지 않을까? 단순한 대립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의 실천적 과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둔 방법론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다. 요컨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론적 방법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현장과

---

*Perspectiv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chapter2 “The Archival Paradigm: The Genesis and Rationales of Archival Principles and Practices”,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2000; Gudmund Valderhaug, “Between practice and theory—Some reflections on archival Science, the archival professions and archival education”, Depotdrenge; Berndt Fredriksson, “Postmodernistic Archival Science—Rethinking the Methodology of a Science”, *Archival Science* 3, 2003, pp.177-197.

접목하는 새로운 기록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일상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이 호흡할 기록방법론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기록관리’(RM: Records Management) 방식이 있는데 왜 그러나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1999년 이후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형성된 역사적 방식’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기록방법론 중의 하나일 뿐이다. 새롭게 제기되는 일상패러다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전에 ‘체조체 효과’라는 은유(metaphor)를 통해 말한 바 있다.<sup>2)</sup> 이 글은 우선 ‘일상패러다임’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록방법론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나아가 1999년 이후 형성된 공공기관 아카이빙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록방법론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최종목표는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기록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에 참여해 일조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일상개념은 우선 <2011년에 등장한 일상아카이브><sup>3)</sup>의 일상 개념에서 출발한다. 광건홍은 이 글에서 일상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

2) 이영남, 「기록의 역운」, 『기록학연구』 제39호, 2014.

3) 광건홍,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광건홍은 이 글에서 국가아카이브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국가기록원의 아카이브 이벤트>를 분석하면서 아카이브 철학의 부재와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했고,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노동부 컬렉션> 분석을 통해서 기록의 비총체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국가가 국가를 기록화 하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기록이 외면당했던 현실을 생각하면 ‘공공기관 기록혁신’ 흐름은 일정한 역사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 요컨대, 지난 15년 동안 추구했던 국가패러다임의 방향성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지만,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패러다임에 대항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들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작업으로 ‘기록 대화문화’를 담론화 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이 있다. 조민지,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2014; 이영남, 「기록의 역운」, 2014. 기록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해서는 이 글 5장 1절에서 이야기 한다.

짚으면서 일상아카이브에 다루는 일상은 단순히 루틴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다. 따라서 기록이 다룬 일상은 “우리 존재의 기반을 이루며,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생산하는 생활공간”이어야 하며, “국가와 자본의 활동영역과 구분되면서도 국가와 자본의 힘에 의해 조직화되고 변형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광건홍은 이런 기록작업을 통해 “일상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기제”라고 본다. 한 개인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일상기록은 “작은 사람들이 체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되며, 한국근현대사 전개과정과 연결된다면 “보통사람들의 행위와 고통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재현해 내는 작업”이 된다. 이런 일상 개념은 기록의 수행범위를 매우 폭넓게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런데 재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sup>4)</sup> 개별적 지위에 두기보다는 여러 요소들과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수성에서 일반성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상아카이브를 통해 국가아카이브와 대별되는 새로운 기록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일상패러다임’은 2011년 이후 논의되는 ‘일상아카이브’와 밀접히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아카이브로 한정짓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인 쓰임새가 있다면 재활용을 시작해야 한다. 재활용 방법론의 핵심은 그것을 ‘실제 the real’로부터 탈주시키는 것이다. ‘실제’는 거기에서 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굳이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되는 기록공동체의 공유재산으로 탈바꿈하지 않았을까? 한 생을 마치고 다시 윤회하는 일상아카이브는 국가아카이브와 대별되는 다양한 아카이브를 상징한다. 움푹 파인 구멍이 주변의 물을 모

---

4) ‘재활용’은 일종의 은유인데, 기록학적 내부 맥락에서는 재아카이빙(rearchiving)과 두터운 맥락화(thick contextualize)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조민지, 2014; 이영남, 「기록의 역운」, 2014.

으듯이, 일상아카이브에는 전후의 기록흐름을 포괄하는 ‘여울목효과’가 있다. 일상아카이브는 더 이상 ‘그 실제’가 아니라 동시대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는 아름다운 은유이다. 은유가 아니고서야 다양한 흐름을 품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유의미한 기록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 문화자원아카이브,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업무시스템을 넘어서) 사이버 세계를 직접 다루는 디지털 아카이브, 담론 실천적 성격을 갖는 포스트모더니즘 아카이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기록의 초기부터 시작된 구술아카이브도 중요한 흐름이다. 같은 시기에 경향각지에서 이런저런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면, 거기에는 일정한 시대성이 스며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성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시소러스’로 삼아 이런 흐름들에 닿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기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일상아카이브에 주목했다. 결국 일상아카이브에 더 이상 개별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동시대의 다른 흐름들과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일반성’을 부여해 보았다.

‘일반성’은 대표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시소러스는 무엇을 대표하기 보다는 유사한 것들을 연결시켜 정보를 확장시켜주는 네트워킹에 충실하지 않은가? 이것을 비유로 들어보면, 기록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간 난쟁이들은 개별적인 난쟁이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선 난쟁이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 개별적인 난쟁이들 세계에서 대표성을 가져봐야 고만고만한 난쟁이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난쟁이 아카이브가 아니라 거인 아카이브이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되는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 기호론의 시선으로 기록방법론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풀어본다.

기록의 시선으로 볼 때 기호론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기호적임을 전제로, 기록의 효과를 기호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기록화 대상·매개 중에는 국가패러다임의 제도실천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미지, 내러티브, 상징 등의 기호가 그것인데, 일상패러다임에서는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런 기호들을 다룰 때 기호론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기록의 시선으로 접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록의 의미작용’이다. 기록의 의미작용은 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적 소통에 있다. 따라서 기록을 통해 문화를 읽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호로서의 기록, 그리고 기호교환으로서의 기록의 기록화를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단지 기록이 가능하게 하는 의미만이 아닌, 기록과 기록이 만들어 내는 기호작용·효과와 상징까지 아카이빙 해야 한다. 기호론적 접근은 언어실천을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 이유는 기록만이 아니라 기록의 의미화, 의미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실천에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록과 기억의 기호작용은 기록의 활용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의미화 과정 속에 있다.<sup>5)</sup>

새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현 부대에 계속 담을 경우 현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이다. 새 술과 현 부대를 모두 잃을 수는 없다. 다행히 가능성은 보인다. 기호학, 인류학, 문사철(文史哲),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네트워킹 한다면 새로운 기록방법론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전부 다룰 수가 없어, 필자들은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시리즈 형식으로 다룰 것이다. 새로운 기록방법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 기록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도 네트워킹 되기를 바란다.

---

5) 조민지, 2014, 2장 2절. 기호론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3장과 4장에서 한다.



## 2) 논의 방향

### (1) 새로운 글쓰기

손끝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집단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진리’(통념, 또는 소여 the given)의 뒷면을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문화인류학자들의 글쓰기 스타일은 논문체 스타일도 있지만 에세이 스타일의 글도 있다. 어느 쪽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논문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에세이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기록공동체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미국의 민중사가인 하워드 진도 에세이체로 역사를 서술했다. 하워드 진이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즈의 에세이체도 학술·연구영역에서 작용하는 글이다. 아키비스트의 글쓰기 방식도 그 허용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이 글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기록방법론으로서 새로운 글쓰기를 말한다. 우화 형태의 문단이 중간 중간 등장한다. 우화내용을 따로 창작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해석이다. 고전에 속하는 작품(카프카의 『변신』, 이상의 『날개』, 루쉰의 『광인일기』)을 이 글의 맥락에 맞게 해석해보았다. 왜 우화일까? 때로는 우화 형태로 말해야 할 때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화는, 아마도 단어 형태가 아니라 문장들이 조직적으로 배열된 긴 텍스트 형식의 은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화형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뒤에 이어지는 글에도 ‘문학적 표현과 비유’가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협지나 로망스 소설에나 어울릴 법한 문장도 등장할 것이다. 문단배치에도 변화를 주었다. 문단을 가지런히 배열하지 않고 때로는 한 문장이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기도 할 것이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다. 또한 구어체도 일부러 썼다. 글의 리듬감을 살려보려는 시도이다. 이런 조그마한 변화는 무엇일 수 있을까? 장신구 같은 것일까, 그러니까 한 개인

의 단순한 취향 같은 것. 아니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것, 그러니까 어떤 지향성을 추구하는 굵직한 사회적 줄거리에 속하는 장르 때문일까?

아마도 이런 글을 실제로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것도 같다. ‘이런 것은 문학텍스트에는 어울릴지 모르나 적어도 학술논문에는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일종의 집단적 판단근거로 작동하는 그 무언가가 진리형태로 등장하는 ‘진리의식’의 작용이라 생각한다. “그레고리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속에서 자신이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카프카의 변신). 가족을 부양하는 고달픈 삶을 살던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갑각류로 변해 있었다. 벌레가 되었는데도 가족과 직장상사는 출근을 독촉한다.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협박은 이어졌다. 급기야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노동의지와 노동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벌레이다, 벌레는 죽어야 한다. 이 글을 읽을 때 일을 하지 말자로 읽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일하는 방식(글쓰기 스타일)에 대해, 살아가는 방식(낮선 것을 접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선(벌레)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라는 은유로 읽었다. 이 글은 진리의식 자체를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진리의식은 상황에 맥락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진리의식의 상대성이랄까, 복수의 진리성이랄까, 적어도 새로운 방법론을 말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소박한 대화요청이다.

현재 논문체 서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낯설 것 같다. 인간은 어떤 현상이든 일정한 기준을 근거로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적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준이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체를 거듭하는 문화체계이다. 우리의 판단기준은 1999년 이후 형성된 논문체 서술 방식이다. ‘연구방법론’에 한정해 보더라도, 연구방법론은 질적 방법론

과 양적 방법론으로 대별되었다. 비중은 여전히 양적 방법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비중여부를 떠나서 새로운 존재의 출현은 어떤 대상을 탐구하고 기술하는 데에 양적 방법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특히 인간의 경험, 기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양적 방법론이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현지조사, 장기간에 걸친 참여관찰, 대화와 면담, 문화체계에 대한 상징적 이해 등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기억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sup>6)</sup> 인간이 일정한 문화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양화 중심의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일상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여정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와 은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해 기억과 경험을 보존하고 전수해왔다.<sup>7)</sup> 진화론의 시선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는 연구자들은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지적한다. 요컨대,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모습은 앞 세대로부터 전수받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와 은유 형태로 전수받으려는 진화론적 노력, 즉 몸에 밴 생존전략이다.<sup>8)</sup> 공공기관의 의사소통은 정확한 지시이행이 핵심일 것이므로 은유는 공공기관 보고서에 담기기 어렵다. 은유에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일상에서는 은유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

6) 이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윤택림, 『문화와 역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개정판』, 아르케, 2013이 도움이 된다.

7) 이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M. 존슨·조지 레이코프,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D. Jean Clandinin, 소경희 역, 『내러티브 탐구-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교육과학사, 2007 등이 도움이 된다.

8) 이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브라이언 보이드, 남경태 역, 『이야기의 기원-인간은 왜 스토리텔링에 탐닉하는가』, 휴머니스트, 2013; 조너선 갓셜, 노승영 역, 『스토리텔링 애니멀-인간은 왜 그토록 이야기에 빠져드는가』, 민음사, 2014가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 밖에 나가서도 보고서를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탁월한 르포기록(예: 『위건부두로 가는 길』, 『언더그라운드』, 『노동자, 쓰러지다』, 『의자놀이』)일수록 ‘문학적’이다. 현재 기록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르포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 르포작가(한 르포작가는 자기를 스스로 ‘기록노동자’라고 칭한다)에게 우리랑 소통하려면 논문체 서술방식으로 써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글쓰기 방식은 기록방법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쓰기 방식은 어떤 기록이냐, 어떤 상황에 처한 기록이냐, 누구를 위한 누구의 기록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논문체 서술방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글쓰기도 종류와 방식이 다양해져야 한다.<sup>9)</sup> 새로운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 되어 이제는 진부하게 들릴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

1918년에 발표된 광인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잡혀 먹힐까봐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사람임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여인은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물어뜯어 버리기 전에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광인의 집도 다들 바가 없었다. 형은 광인을 감시하면서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마을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닐수록, 집에서 식구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상황은 명료해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개가 나를 노려볼 이유가 없잖아.” 개도 살기를 띠고 인간을 고기 덩어리로 썰어보고 있었다.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으니. 1910년대 중국 현실은 암울했다. 고래로부터 이어지던 관습적 질곡과 새롭게 시작된 식민지적 상황이 중첩되었다. 이 때, 새

9) 『기록학연구』를 통해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실험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상징아카이빙」(2013년), 「기록의 역운」(2014년), 「기록의 전회」(2014년) 등이 있다. 사실은 기록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롭게 등장한 흐름(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은 현실을 오히려 암담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루쉰은 광인의 시선으로, 그리고 광인의 언어로 우화를 썼다.

광인일기도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의 기록방법론은 연구방법론과 실천방법론을 아우른다. 물론 연구와 실천을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뼈와 살처럼, 살아 있다면 분리될 수 없고 합체가 되어 다리를 구성하는 법이다. 죽은 다음에야 앙상한 뼈만 남을 것이다. 이 글이 기록의 역동성을 전망하는 데에는, 살과 뼈로 구성된 다리와 손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론과 실천방법론이 네트워킹 되어 기록방법론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도 바깥으로 큰 일 하러 나가는 남자들에게, 학교와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부엌일은 사소하게 여겨졌다. 기록실천의 여정에서도 사소하게 취급되는 게 있다. ‘문체(style)’가 여기에 속한다. 아직 기록공동체 내부에서는 글을 쓰는 스타일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별반 없다. 아쉬운 대목이다. ‘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그 전과는 달라, 왜 이렇게 몰라줘.’ 반복해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 이유는 행동이 바뀌지 않았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록실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타리니 고진이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문체가 바뀌어야 사유가 바뀐 것이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언어)이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와중에 있는 생각을 새로운 스타일의 글, 또는 새로운 기호체계로 표현해야 한다.

말과 사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동안 사물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아무리 새로운 기록실천이라고 해도 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록공동체 내부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소통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현

장을 모든 사람이 직접 방문할 수도 없거니와 눈으로 보아도 이야기로 새로움을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새로운 언어스타일이 새로운 기록 실천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당대 문화 내부에서, 언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구성해내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보다 커졌음을 반영한다. 언어가 단지 하나의 일관되며 의미 있고 ‘객관적인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언어는 하나의 독자적이며 자족적인 체계로서 그 자체의 의미를 발생시킨다.”<sup>10)</sup> 포스트모더니즘이나 20세기 기호학(언어학)의 성과를 꼽아보면 언어는 객관적 세계의 수동적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객관적 세계를 구성한다. 살아 있는 몸에서 단백질을 제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물에서 기호(언어)는 제거될 수 없다. 부엌이 사소한 공간이 아니듯이, 언어도 사소하지 않다. 기록의 바깥일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밥(글)도 중요한 기록실천 영역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평생에 걸쳐 몇 십번씩 담배를 끊는다. 새 해 아침 담배를 끊는다고 다짐을 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왜 일까? 이것은 의지박약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습관은 한 개인의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습성을 들여야 한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담배습관이 아닌 다른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담배피우는 사람들과 멀어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담배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은

10) 폴 코블리, 윤혜준 역, 『내러티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223쪽. 이런 방식의 언어학-기호학적 접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기록학적 의미는 조민지, 2014, 2장에 서술되어 있다.

것은 기록습관이다. 어느 날 아침 담배 대신 마라톤을 선택한 방법론적 노력처럼, 이 글도 새로운 스타일로 글을 쓰는 미시적 기록실천이며, 새로운 기록습관을 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기록공동체의 기록습관에는 논문체 글이라는 것이 있다. 『기록학연구』 같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면 논문체 글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명시적 규칙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서평을 쓸 때는 자유로운 에세이스타일로 가면서도 ‘이른바 논문’으로 편집되는 글을 쓸 때는 논문스타일에서 맴돌지 않을까? 이것은 미시적-일상적으로 보면 기록 권력의 자장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습관)이다. 중요한 것은 명시적 규칙이 아니라, 암묵적-관행적 기록습관이다. 논문체 글은 기록공동체에 연구결과를 등록해서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된 등록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서로가 약속하는 바가 달라지면 새로운 등록시스템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공공기관 등록체계의 경우, 종이와 시청각물의 등록방식이 조금 다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글-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 글은 <에세스타일>의 글이다. ‘에세’는 프랑스어 *essai*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은 말이다. 영어로 편하게 ‘에세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에세’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에세이는 ‘논문 다음에 쓰여 지는 편한 글, 누구나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마음에 이는 생각을 적어내는 글’이라는 통념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통념을 비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진행 중인 생각’을 기록하는 데에는 ‘에세’라는 프랑스풍의 고유한 스타일이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것들은 푸코의 주저가 보여주는 꼼꼼한 사료 분석이라든가 세심하면서도 엄격한 글쓰기를 결여하고 있다. 완성된 연구라기보다는, 사유의 시도 *essai* 속에서 태어난, 말의 충실한 의미에서의 에세이 *essai*. 거기서 굳이 데군데 엿보이는 수사학적인 과장, 논리의 비약과 결합, 피상적인 사례

인용 등은 텍스트 생산의 맥락이나 형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들을 별 중요성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담긴 개념과 아이디어는 그 모호하고 허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사유와 해석과 연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선, 사유 혹은 상상의 지평을 열어젖히는 힘이 있었다.”<sup>11)</sup> 이 글은 불란서풍의 에세스타일을 모방한다. 문장표현이 현재의 논문통념상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논리상 비약과 결함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할 것 같다. 그러나 비록 논문스타일보다는 허술해 보이겠지만, 에세스타일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소통시키는 데에는 유용할 것이라 본다.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논문이 아니가 싶어 거슬리는 문장도 있을 것이다. 문학텍스트에서는 그럴 수 있더라도 이견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금지명령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당연시 되는 논문스타일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스타일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기록의 수행범위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통념을 깨야 한다. 자기감시 시스템(습관)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 기록연구가 현재의 논문스타일로만 쓰여 저야 할 필연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이 있을까? 하나의 사회적 약속일 텐데, 사회적 약속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기록실천의 줄거리 중에는 글쓰기 스타일도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에세’라는 기록스타일을 제안한다. 기록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나와야 한다. 다양성이 수행범위를 넓힐 것이라 생각한다.

---

11)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131-132쪽(옮긴이의 말).



## (2) 실천과 방법의 상관성<sup>12)</sup>

전세가 점점 불리해졌다. 관우는 당황하지 않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래, 조조의 군대를 혼자 대적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 다시 말에 올랐다. 관우는 적진 한가운데로 적토마를 타고 질주하면서 청풍언월도를 휘둘렀다. 대지는 먼지에 휩싸였고 대기는 핏빛이 되었다. 적들의 투구와 머리는 거센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관우(‘경향각지에서 재미실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뒤로 빈 공간이 생겼다, ‘일상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기록 공간이.

2013년 가을, 부산에서 제5회 기록인대회가 있었다. 과연 패러다임 전회가 일어났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 기록공간에는 기록과 돈이 물려들면서 다양한 재미실천이 일었다. 분명히 기뻐할 기록의 향연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일상패러다임’의 시선으로 보건대,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이여,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 성장을 멈춰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으나, 기록이여, 지금보다 더 많이 수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공포감을 가져야 한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저것이 일상패러다임이라면 어떻게 패러다임 전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다. 속은 그대로 인데 외피만 달라진 것 같았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살펴보았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

12) 상관성은 푸코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개념이다(허경, 『푸코강의록』(비간행), 푸른역사아카데미 2013~2014). 이를 기록학적 맥락에서 풀어쓴 것에 대해서는 이영남, 「기록의 역운」, 2013이 있다. 은유로 말한다면, 실천과 방법은 일종의 ‘새끼꼬기’이다. 새끼는 한 가닥으로 풀 수 없다. 두 가닥, 세 가닥, ... 여러 가닥으로 풀 때 새끼는 보다 튼튼해지고 쓰임새도 많아진다.

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sup>13)</sup>가 일상아카이브라면, 일상패러다임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국가아카이브를 관류하는 효율논리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4)</sup> 우려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2장 1절에서 “기록학은 이론, 방법론, 기록 실무가 같이 어우러져 구성된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상관적인 맥락에서 보면, 기록방법론은 이론과 실무가 서로 관계맺는 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실천과 방법의 차원에서 풀어 써 보려 한다.

실천은 이미 앞서 나갔다. 그러나 아직은 <실천을 뒤따르는 방법>에 대한 성찰은 다소 미진한 것 같다. 부산에서 이것을 목도했다. 그 때 그 기록인대회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고 개미들도 석양을 등지며 경향각지로 다시 흩어졌다. 물론 개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록의 새로운 실천, 개미실천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모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개미들이 거미를 짚어지고 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개미실천을 거미실천으로 승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통념과의 단절이라는 역사적 시간이 필요하다.

“통념과 달리, 방법에 관한 성찰은 실천에 앞서기보다는 뒤따른다.”<sup>15)</sup> 통념의 시선으로 보면 이상해 보인다. ‘논문을 쓸 때마다 우리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가요. 서

---

13) 광건홍, 2011.

14) “효율논리는 ‘발전, 확산, 성장, 경쟁, 진흥’과 상관적이다. 일상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실천하는 발표문을 관류하는 것도 효율논리였다. ‘발전전략, 발전방향, 단계별 전략, 협력적 성장모형, 지평의 확대’ 등. 이 말들은 효율사전에 들어가는 어휘목록이다. 지향하는 바의 심층에 효율문법이 작동하고 있다면, 아직 효율 상관성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이영남, 「기록의 역운」, 2014)

15)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역, 『사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난장, 2014, 9쪽.

론이 없었다면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15년 동안 기록을 다뤄왔고, 그럴 때마다 수집방법론-정리기술방법론-보존방법론 등을 활용하지 않았던가요. 표준메뉴얼이 없었다면 기록을 어떻게 다룰 수 있었겠어요? 몇 백 편, 몇 천 편의 논문이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한 해에도 몇 십만 권, 몇 백 만권의 기록물이 자리바꿈을 하는 상황에서 기록방법론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통념에 반한다. 그런데 통념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역사를 패러다임의 전회로, 또는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통념을 의심한다.

다시 돌아가 보자. 공공기관 바깥은 진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일상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마을공동체 포함)에서, 가상세계에서 게임들이 활발히 움직였다. 예를 들어 구술아카이빙이 있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아카이브,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등이 있었다. 다양한 지점에서 재미실천이 동시 발생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어느 한 두 사람, 특정 집단이 이런 흐름을 몰고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기록혁신’이 기록의 역사에서 굵직한 줄거리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부인가? 또 없는가? 시대와 호흡하면서 경향각지에서 재미실천을 해왔던 줄거리도 있다. 문제는 재미실천을 거미실천으로 승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일상패러다임’으로 풀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갈구하며 눈을 반짝거리던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 뿔뿔뿔뿔한 눈빛을 어떻게 잊을까? 일상패러다임은 이제 겨우 예닐곱 살.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워서 미래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새로운 기록방법론이 제기되는 지점이 여기이다. 인간의 삶에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습관의 관행적 힘 때문인 경우가 많다. 기록방법론도 기록습관이라 생각한다.

### (3) 패러다임 네트워크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 마치 패러다임의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마치 논에는 벼만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쿤 패러다임과 몇 개의 패러다임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그런 패러다임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거인아카이빙이 가능하다. 벼만 있는 관행논과 벼, 잡초, 미생물, 물고기, 오리, 아이들, 예술가 등이 어우러진 생태논은 인식과 상상력, 활용에서 그 사이즈가 비교될 수 없다. 패러다임 네트워크를 전망하며 기호패러다임을 이야기 해본다. 기호학에서는 패러다임을 ‘계열체’로 이해한다. “소쉬르의 패러다임은 어떤 공통성을 지닌 기호요소들의 집합으로, 이로부터 기호요소들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호요소의 인벤토리를 뜻한다. 예를 들면 한글 자모는 하나의 계열체이다. 이에 는 두 개의 계열체, 즉 자음 계열체(ㄱ, ㄴ, ㄷ …)와 모음 계열체(ㅏ, ㅑ, ㅓ, ㅕ …)가 있다. 이 계열체로부터 낱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ㅇ」, 「ㄷ」, 「ㄹ」, 「ㅣ」의 네 가지 기호요소를 선택하여 우리라는 낱말(기호)을 만들 수 있다. 국어사전은 우리말로 된 낱말들의 계열체이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은 어떤 부류의 이론들을 담은 커다란 틀이라는 뜻이다.”<sup>16)</sup> 이런 비교법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다. 쿤 패러다임이 거시적 작업이라면, 기호패러다임은 미시적·방법론적 작업이다.

이 차이는 기록관에서 기록을 조직하는 방식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집합구술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컬렉션만 가지고서는 기록을 조직할 수 없다. 하위의 시리즈, 파일단위까지 구성되어야 기록물을 배치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일만 가지고도 기록을 조직할 수 없다. 컬렉션과 시리즈 없이 파일단위에서만 기록물을 배치하고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무질서를 용인하는 아키비스트는 없다. 요컨대,

---

16) 김경용, 앞의 책, 316쪽

컬렉션-시리즈-파일이 네트워크가 될 때 기록을 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기록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일상으로 명실상부하게 전회하려면, <시리즈 차원-기록의 중간공간에서 패러다임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거대하고 이론적인 구성에만 몰두하지 않았던가? 또는 역사적·통시적 맥락도 잡지 않은 채 맨 아래 파일 단위에서만 재미실천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두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서로 발신하지도 수신하지도 않으면서 각자 전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집단의지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개될 것이고 그 고유함과 중요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현 부대에 담길 운명에 처할 것이다. 현 부대를 구해야 하고, 새 술도 구해야 한다. 중간공간을 확보하면서 시리즈 차원의 기록방법론을 실천해야 한다.

논의를 심화해본다. 기록방법론은 “물음-방법론-실천의 계열체”에 속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상아카이브와 액티비즘 이야기는 기록공동체에 던져진 충격적 물음이다. 쿤 패러다임처럼 굵직한 이런 물음을 접하고서야 기록의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액티비즘 이야기는 월가 점령의 교훈, 월가점령에서 나온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해의 출처는 “기록물신성”이 아닐까? 액티비즘은 아키비스트라는 존재와 그의 윤리를 묻는 굵직한 물음이다. 지금까지 허구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던가 하는 근원적 질문이다. 비로소 ‘협애한 윤리강령의 태줄’을 꿰을 수 있을 것 같다.<sup>17)</sup> 그리고 경향각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경향각지에서 재미실천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음과 재미실천이 만날 수 있는 기록의 중간공간-기록방법론을 실천해야 한다.

---

17) 액티비즘은 이현정 발표문(2013년 11월의 부산 기록인대회 발표문(‘미국월가점령과 활동가 아키비스트’), 2014년 3월의 명지아카이브학회 창립기념회 &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Archival activism)을 참조했다.

“통념과 달리, 방법은 그것이 작동하는 맥락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낼 수 없다. 모든 분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8)</sup> 방법론은 이론적 논의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론가들도 필요하지만 아키비스트는 이론가가 아니지 않은가? 구체적인 자기현장이 있고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지식은 이 현장과 환류 할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구성한다. 기록방법론은 〈큰 물음-기록 방법론-개미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는 순간, 물에서 벗어난 물고기와 같다. 맥락이라는 물이 있어야 물고기는 자유롭게 유평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는 거인의 엉덩방아로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이면서 생겼다고 한다. 기록공동체에도 일상패러다임이라는 거인의 엉덩방아가 있자 호수가 생겼다. 이제는 호수에 사는 물고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호수의 공간적 변형은 역사적·통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물고기의 발생-형성-진화를 말하려면 문화적·공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호패러다임은 이런 점에서 유용하다. “묻혀 있는 이항대립쌍들(예: 채우기/비우기, 쓰기/지우기)은 계열체(paradigm)를 이룬다. (...) 대립쌍들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일어난다. (...)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대립쌍들은 마치 물고기의 뼈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의 뼈들이 계열체를 이루고 늘어서야 하듯이, 하나의 계열체를 위해 적절한 수량의 대립쌍들로 된 계열체가 필요하다.”<sup>19)</sup> 기호패러다임이 공시적·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상징한다면, 기록이라는 물고기는 진화를 위해 이웃과 교류해야 한다. 진화는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

18) 아감벤, 앞의 책, 10쪽.

19) 김경용, 앞의 책, 184-185쪽.

‘기록의 외부’를 사유해야 한다. 자기 내부에서 공시적·역사적 비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수직적 비교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진화를 위한 갈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내부에서 폐쇄적 대치는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휴전선처럼 교류 없는 냉전이다. 그러나 기호패러다임 방향성은 수평적이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 말을 건네는 것이다. 기록도 이웃분야에, 일상의 도처에 ‘기록물 이외의 것들’을 나눠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오른손에는 기록물을 왼손에 ‘기록물 이외의 것들’을 들고 양손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 2. 기호의 등장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은 기호이다. 기호는 만남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 만남의 우발성이 기호가 생각에 부여하는 바의 필연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생각 활동은 단지 자연스런 가능성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하나의 진정한 창조이다. 창조란, 그 자체에서의 생각 활동의 발생이다. 그런데 이 발생은 생각에 폭력을 행하는 어떤 것, 생각의 혼미한 상태, 즉 단지 추상적이기만 한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을 내포한다.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항상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기호를 설명하고 전개하고 해독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하고 해독하고 전개하는 것은 순수한 창조의 형식이다. (...) 우리는 강요되었기에 시간 안에서만 진실을 찾는다.<sup>20)</sup>

---

20) Gilles Deleuze, *Proust et les Signes*, 1976, 서동욱 역,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2013, 145쪽.

기호가 등장했다. 기호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기록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록을 ‘인간과학’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인간과학은 ‘인간을 만드는 전문지식’(법학, 정신의학, 경영학, 교육학, 군사학 등)을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너무 허황되고 요란스럽게 느껴진다면, 인간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이 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규정할 줄 알아야 하고, 권력이 요구하는 양심과 도덕을 몸에 새겨야 하고, 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생활방식(예: 학교, 군대, 감옥)을 습득해야 한다. 요컨대, 인간은 시대적 상황에서 권력효과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인간과학의 맥락에서 보면, 기록이란 인간이 이용하는 유용한 정보라기보다는 인간을 구성하는 ‘문화적 DNA’이다.<sup>21)</sup>

기호의 등장을 연대기 형식으로 살펴본다. 기호의 등장은 새로운 <아카이빙 테이블>을 제공한다. 기록의 역사에서 첫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은 ‘기록물’이었다. 1999년 당시만 하더라도 결재를 득한 공문서를 관리하던 차원이었다. 그런데 기록물이라는 새로운 아카이빙 테이블이 등장하면서 공문서, 회의록, 메모, 업무노트,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이 기록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비유를 들자면, 가난한 시절 콩보리밥만 먹던 장면이 그래도 살만해져서 고깃국에 흰쌀밥을 먹는 장면으로 바뀐 것. 종전의 공문서는 스스로 전부에서 기록물이라는 보다 광대한 기록집합을 구성하는 원소 중

---

21) ①기호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 논의로는 다음이 있다. Meung-Hoan Noh,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제5회 AERI 학회 발표문; 노명환, 「융복합 웹콘텐츠 헤리티지 마케팅」 발표문, 2013; 이영남, 「상징아카이빙」, 『기록학연구』 제38회, 2013; 조민지, 2014. ②인간과학 맥락의 논의로는 다음이 있다. 이영남, 「마을아르페 시론」,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광견홍, 2011. 구술, 로컬리티, 포스트모더니즘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못했다. ③일정한 규모의 프로젝트 활동(인간과 기억아카이브, 로컬리티-장소성, 기록과 사회문화연구 등)도 언급하지 못했다.



하나가 되었다. 종전에는 공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었고 이들은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지 못했다. 만약 새로운 아카이빙 테이블이 없었다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요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기록물이라는 새로운 아카이빙 테이블은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기록의 세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 주었다.

두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은 ‘전자기록’이었다. 전자기록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기록물이 아니라 ‘기록물 주변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비유를 들자면, 식탁 위에 다채로운 반찬이 차려진 장면으로 바뀐 것. 메타데이터, 기록의 4대 속성, 장기보존포맷, 기록시스템 등은 기록물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기록물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면서 내적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기록물 관리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기록물 주변부(기록물을 만드는 구성요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록의 성질과 원리를 새롭게 바꿨다.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서 상대적인 가치만 갖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로소 유일원본성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록에는 단지 상호 약속해서 구성하는 진본성만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물의 영구보존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장기보존으로 내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기록물이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점도 받아들여야 했다. 물리적으로 고정불변인 실체가 없어도 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기억을 되찾은 후에 갖는 당혹감 같은 것이었다. 기록관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통적 ‘기록물 보관소’에서 ‘기록물 주변부를 관리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변

부를 관리한다는 것은 한 사회가 기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종이기록에는 매체 특성상 누군가 훼손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면 원본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고정된 신뢰감이 있다. 불순한 의도만 잘 관리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기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알려 주었다. 기록의 변화하는 성질을 신뢰감 있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 것이다. 주변부가 중요하다. 주변부를 관리하지 못하면 기록관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기록 시대는 종이기록 시대에 형성된 기록에 관한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sup>22)</sup>

세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이 기호이다. 생각, 감정, 이미지(image), 소리, 기억, 욕망, 의미, 내러티브(narrative), 상징 같은 것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기록의 세계는 이제 물리적으로 거대한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다채로운 세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를, 음성파일이 아니라 소리를, 전시물이 아니라 욕망과 내러티브를 아카이빙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진이라는 물질성, 음성이라는 물질성, 전시물이라는 물질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기록기호의 특징적인 면모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미지, 소리, 욕망, 내러티브 같은 기호작용, 또는 기호효과를 아카이빙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애초부터 노동능력이 없어 아내에게 빌

---

22) 두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은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정한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이관 과정의 다양한 이슈, 완료 후 전자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 등이 기록공동체에서 상세히 논의가 된 후에야 '기록물 주변부 관리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관의 문턱, 보존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전자기록의 새로운 이슈와 논의는 이 문턱에서 나올 것이다.

붙어 살았다.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 그렇지만 나에게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이상의 날개). 아내가 남자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현실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남자의 삶을 근원적으로 구성한다. 남자는 그 날 이후, 아내가 구성한 현실에서 살았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었다(이상의 집은 서울 서촌에 있었는데 대낮인데도 집이 어두웠다고 한다). 다시 어느 날, 현실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남자는 결단을 내린다. “정오의 사이렌이 울었다.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리에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는 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는지, 글썽? 알 수 없다. 간절한 욕망을 자기 목소리로 외쳤는지도 알 수 없다.

기호작용은 마치 이상의 아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구성한다. 일기를 수집하러 다니지 말라. 일상패러다임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카이빙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아카이빙 테이블은 점차 문화적으로 다채로워졌다. 기록물, 기록물주변부,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기록의 맥락들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앞의 두 개가 이제는 익숙해졌듯이, 기호-기록의 맥락들도 기록이라는 것도 조만간 익숙해질 것이다.

기호작용, 또는 기호효과를 아카이빙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사실 두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에서도 기록서비스는 기록이 잘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성을 주된 것으로 한다. 기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은 기록물이 활용되는 보이지 않는 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아가 그런 맥락을 아카이빙 해야 한다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요컨대, 서비스가 종점이며 이후 ‘기호의 무한반복(unlimited semiosis)’에는 관심이 없

을 뿐만 아니라 기록현장으로 구성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터미널은 종점이기도 하지만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호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는 그곳을 종점이 아니라 출발지로 삼음으로써 기록현장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출발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호작용을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기록관의 시선이었고 이 시선 하에서 기록관을 찾는 사람들은 ‘열람자’였고, 이 시선 하에서 그들의 언어가 규정되었다. 이럴 때 열람자는 아카이빙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관 열람행위의 대상자들이다. 기록의 주체가 아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만약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에 가서 기록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열람행위가 될 수 없다. 똑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로 기록을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아카이빙 행위이지 단순열람은 아니다. 이 극소수 아키비스트만 가지고 있던 기록창조의 특권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기호작용 또는 기호효과의 핵심이다.

기록관을 하나의 정거장으로 삼아 어디에선가 왔다가 어딘가로 가는 사람을 상정해보자. 그가 아직은 어떤 행적을 그리는 와중에 기록관에 들렀는지는 모른다. 그는 왜 기록관을 방문했을까? 글썸 말이다. 그는 왜 기록관에 왔을까? 그에게 다른 것부터 물어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왜 영화관에 가는가? 안드레이 타로코프스키에 따르면 “보통은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시간, 또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간다.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영화관에 간다.” 바이크족은 왜 커다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가? 사람들은 왜 청계천을 걷는가? 이런 물음에 답이 하나일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자유를 타는 것이고, 청계천을 걷는 것은 낭만을 걷는 것이 라면, 같은 맥락에서 기록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은 기록관을

방문하는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자유이거나 낭만을 위해 기록관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는 열람자가 아니라 기록기호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기호 아카이빙 테이블에는 ‘열람’ 대신에 ‘생산’이 등장한다.

제조회사 입장에서 오토바이에 접근한다면 경제행위에 국한된다. 제조회사는 오토바이를 많이 파는 것만으로도 족하겠지만 바이크족의 시선으로 오토바이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기호행위이다. 이제 바이크족은 자유의 길을 달리는 에이전트가 된다. 또한 제조회사도 ‘천한 장사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자유의 흐름 속에 배치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기록관이 세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에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호작용에 참가하게 된다면 기록관은 기호작용이 상징하는 사회의 가치에 참여한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여행이라면, 기록관은 이제 대전역에서 기차를 맞이하고 보내는 정거장이다. 기호라는 기록레일이 새로 깔리면 기록관은 새로운 기록레일의 한 정거장이 될 것이다.

기록을 매개로 기호작용이 무한반복 되면서 접혀진 차원들이 출현하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이 현실로 열린다면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13년 늦가을, 중국 영화감독 왕가위 특별전(회고전)이 열렸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왕가위 감독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했었다. 그 당시에나 이번에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누군가는 놓쳐버린 시간을 찾아서, 누군가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을 찾아서 영화관으로 갔을 것이다. 영화관 없이 영화도 없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긴, 비디오방에서 보긴, 도서관에서 보긴, 그 어디에서 보긴 그것은 ‘영상물’이지 영화는 아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그 고유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영화이다. 어쩌면 기록관은 두 번째 아카이빙 테이블까지도 영화관 없는 영상물은 아니었을까? 기호 아카이빙 테이블은 기록의 세계를 영상물이 아니라 영화가 상연되

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기록도 삶의 전체성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극사실주의’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다. 매우 엄밀하게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역설적으로 극도의 추상이 된다. 앞서 기호아카이빙을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이런 역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12~2013년에 느티나무도서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아카이빙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워크숍에는 도서관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대안학교 교사, 전업주부, 잠시 쉬는 사람 등 10여 명이 참여했고 10주 동안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했다. 평생 기록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 기록경험이 처음이었다. 이들에게 기록은 무엇이었을까? 또는 이들은 왜 기록관에 갔을까? 어떤 자유의 길이 있었을까, 어떤 낭만의 길이 있었을까?

“함께 기록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버전의 기록을 생산해 낼 수 있었죠.” 기록을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에게 기록은 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지켜온 노동이거나 진부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유희를 말하고 있다. 노동의지와 노동능력은 없어도 상관 없다. 노동과 유희의 차이는 뭘까? 노동은 보상(물질적 보상이든, 사회적 의미이든)이 따르는 것이고 의무감이 동반되는 행위이다. 반면 유희는 스스로 즐기면서 상황에 몰입하는 행위이다. 기록이 노동이 아니라 유희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새로운 기록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기록의 생산성’은 아마도 그것이 유희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기록은 ‘공공기관’ 중심이었으며 노동-기록의 계열에서 전개되었다. 기록을 유희라 말하는 것은 결국 기록에 또 다른 여분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유희-기록의 계열은 아직 접혀져 있다. 서서히 펼쳐질 것이다. 기록은 노동과 유희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성찰이란 무엇인가? “기록이란 내게 버려지고 가슴 아픈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역사적 성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록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기록성찰도 있다. “(사진이 발명된 후) 잡동사니, 눈에 거슬리는 것, 폐품, 기이한 물건, 저속한 것들이 피사체가 되었으며 이런 삶의 잡동사니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sup>23)</sup>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삶의 잡동사니를 아름다운 것으로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이것은 기록의 미학이다. 기록행위가 거미줄에 걸린 새벽이슬의 영롱함으로 빛난다. 기록은 내팽겨쳐진 것, 또는 외면했기에 추했던 것들을 아름답게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한번쯤 더 가져보는 것이 기록에서도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에 숨겨진 여분의 차원이다. 느티나무 아카이빙 당시에는 사실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저 커뮤니티 아카이빙이 제대로만 된다면 공공기관 아카이빙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여분의 효과가 있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짧지만 긴 시간을 지내며 기호아카이빙을 공부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기록관이든 도서관이든, 카페이든 술집이든, 모두 하나의 기록정거장이 된다는 것을. 삶-기호작용-기록의 네트워크는 삶에게도, 기록에도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이상으로 기호의 등장을 연대기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몇 년, 박사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현장에서 기록워크숍을 진행하고, 기록공동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호실천을 했다. 새롭게 기록을 사유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풀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사물의 연대기를 써보았다. 다소는 장황하게 연대기를 쓴 감도 있다. 개인의 기록경험이 사회적 기록경험으로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령부득했을 것 같다.

---

23) 수잔 손택, 이재은 역,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05.

### 3. 사물과 기호<sup>24)</sup>

#### 1) 사물이 관계하는 방식

앞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학 이론과 실무 영역을 아우르며 정의되는 기록의 의미는 실체를 갖춘, 사물의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 사물로서의 기록은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개념화되며 표현되는 것일까? 그리고 현대 사회와 사람들에게 ‘사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소비되는 것일까? 다양한 구분과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물은 개별적 주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징표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했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저자 파라켈수스의 주장처럼, 모든 사물에는 보이지 않는 성질을 드러내는 징표가 담겨 있다. “기호학은 모든 것”이라고 했던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재화와 차이화 된 기호로서의 사물의 유통, 구입, 판매, 취득은 오늘날 언어활동이며 코드인데 그것에 의해 사회 전체가 의사소통하고 서로에 대해 말한다.”라고 주장하듯<sup>25)</sup>, 사물을 소비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지

---

24) 이 글의 3장, 4장의 일부는 공동저자 조민지의 2014년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2장 2절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25) 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2002, 103쪽. 특히 보드리야르는 새로운 것과 다른 것, 대립적인 것과 전복적인 것은 그 자체를 통제하고 모든 의미작용과 의미를 지배하는 기호학적 체계에서는 단지 기호의 차별적 기능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주장한다. 생산의 우위성과 생산양식에 대한 맑스의 주장에 대하여 보드리야르는 의미작용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그가 주장하는 이 의미작용의 양식이라는 개념은 생산양식과 그 법칙과 논리에 우선하는 것이다. 즉 기호의 지배는 기호의 증식과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Jean Baudrillard, (*papers edited*), 『보드리야르의 문화읽기』, 배영달 편저, 백의, 1998, 280쪽.



시한다.

상징력의 차이가 관계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다른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사실 우리의 일상 삶의 공간은 다양한 기호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이런 기호를 끊임없이 만들고 해독하는 의미작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와의 관계란 텍스트를 통해 인지가능하고 보이는 것에서부터 코드에 이르는 연결 의미까지도 읽고 해독해 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곧, 의미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발견은 비단, 언어만이 아닌 삶의 내용과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사물의 의미와 가치는 언제나 개별적 삶의 맥락에서 판단되고 새롭게 드러난다. 이는 다시, 사물이 실존하는 방식이 상대적이며 그 속에서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기호 교환 과정임을 가리킨다.

사물을 사용하는 과정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석과 말 걸기를 통해 열린 의미체로 수용되며, 이때의 사용자는 언제나 평균화된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인 기록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이란 생산 시점의 특정 가정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을 바탕으로, 그 가정에서 열심히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의 사물 소비 활동은 기호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소비되는 것이 사물로서의 기록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 보기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명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 2) 사물과 기호의 의미화와 발견과정

상징하는 힘을 통해 사물과 관계하는 방법이란 바로 기호가 되는 과정이다. 우선, 기호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물질적 기반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에 결부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의 의

미다. 그리고 기호의 물질적 기반을 기호물(sign-material)이라 한다. 기호는 지각되어야 하므로 우리 몸에 의해 지각될 수 없는 것은 기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순수한 아이디어 자체나 의미 자체는 그것이 특정한 기호물에 의해 대신 표현되지 않는 한 기호가 될 수 없다.<sup>26)</sup> 기호는 인간이 행하는 관계 속에서 생산해내는 일종의 공동생산물에 다름 아니다. 기호란 별도의 기호라는 사물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기호로 본다면 그것이 기호가 된다는 데에 그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호는 작용의 문제이며, 하나의 사회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삶의 현상에서 재현되고 표현되는 행위에 개입되는 모든 매개물이 기호이다. 따라서 언어도, 그림도, 동작, 표현, 감정까지도 기호가 될 수 있다. 특히 기호가 인간에게 하나의 기호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각 작용을 통해야 하며 유기체에게 기호가 되는 기호공정이 바로 기호작용(semiosis)이다.<sup>27)</sup> 기호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것과 표현한 것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문화적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화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으로 생산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문화 생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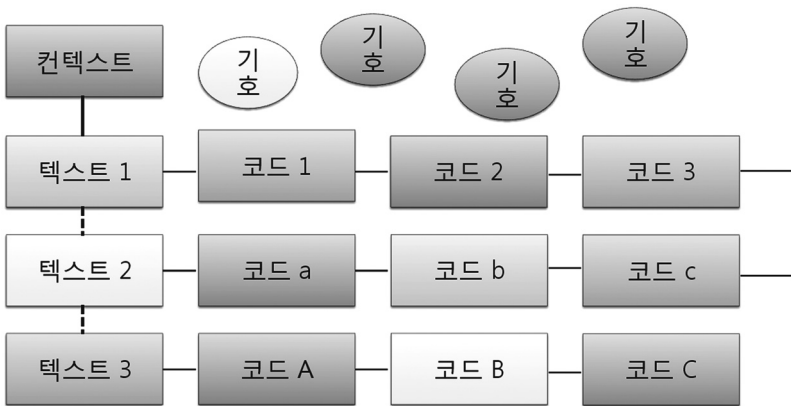
26) 김주환,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생각의 나무, 2008, 15쪽. 기호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기호물은 우리 몸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이며 특정한 기호물은 특정한 지각편린을 생산해낸다.

27) 김경용, 앞의 책, 124쪽. 여기에는 사고(思考) 하나하나가 기호이며 기호작용은 기호가 해석자에게 일으키는 인식효과를 의미한다고 한 퍼스의 개념규정이 드러나 있다. 소쉬르와 함께 현대 기호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언어만이 아닌 보편성 기호학의 지평을 연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 과학자, 수학자이기도 한 퍼스(Charles Sanders Peirce)는 “인간의 어떤 정신에 대해 어떤 대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an object which stands for another to some mind)이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호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어떤 것을 대신 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둘이 반드시 일정한 ‘기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기호다. 소쉬르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택된 기호와 그 기호가 대신하는 의미 사이의 기호관계는 자의성(arbitrariness)에 기반 한다고 보았다.

에 적용 가능한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기호학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호나 약호,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개인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인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은 문화가 가능하지 않듯이 문화기호로서의 해석체와 기호의 역동적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보다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기호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의 전달과 관련한 것이다. 발신자로부터 메시지(텍스트)를 수신자에게 전달, 소통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에 기호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호학 연구의 가설은 심층의 코드에 종속되는 메시지 발송으로 작동한다는 것에 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정렬된 코드와 코드로 이어지면 텍스트가 된다. 이 텍스트들이 통합되어 컨텍스트를 이루며, 이는 다시 고도의 상위 개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호, 코드, 텍스트, 컨텍스트의 관계<sup>28)</sup>



28) 조영식, 『제품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7쪽.

사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이해하고 다시 기호가 설명하는 문화를 보게 되면 기호의 지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식, 기호와 같은 것은 사회 전체 과정을 함축하며 대체로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물의 잉여소비는 바르트(Roland Barthe)가 말하는 신화구조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 사물이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사용가능하며, 그 소비 구조 속에서 의미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생산으로 유용되게 하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산력을 착취한 반면에, 오늘날 기호와 코드는 의식과 행동을, 소비, 복종, 미디어, 스펙터클에의 매혹, 의회제 민주주의 등과 같은 미리 결정된 어떤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우리가 기호의 지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계급, 성, 인종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개인을 미리 정해진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돌려놓는 것이다.<sup>29)</sup>

이렇듯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행위 속에서 사물이 이해되고 규정되는 방식은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실존하는 다양한 모습 중 어느 하나만 유일하고 지배적이라는 가정 속에는 이 데올로기적 힘이 자리하고 있다. 그 힘은 하나의 소실점을 만들고, 소실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자를 만들고 억압하려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사회를 기호학적 이해에 따라 본다는 것은 결과가 만들어 내는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과 기호, 기호와 기호 간의 변증법적 속성을 강조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렇듯 사물의 존재 방식이 기호화 과정을 통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은 즉, 사물을 읽고 발견하는 과정에 인간의 언어체계 이외의 의미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호학적인 틀로 설명 가능하다는 뜻이다.

---

29) Jean Baudrillard, 앞의 책, 280쪽.

## 4. 기호학적 방법론

### 1) 기호학의 체계와 의미

기호의 기호적 속성은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으로부터 발현된다. 따라서 기호학은 기호에 의해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기호학의 의미에 대해 에코(Umberto Eco)는, “모든 문화의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기호 외적인 상황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현대 기호학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모든 현상과 함께 문화 현상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문화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겠지만, “한 사회에 공통으로 축적된 기호적 경험을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많은 정의 중 하나이다. 어떠한 실체든지 그것은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체가말로 대상이자 기호이며 또한 해석체이다.<sup>31)</sup> 동어 반복이겠지만, 문화에 의해 기호와 의미 관계가 결정되고, 기호와 의미 관계의 총합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문화를 바탕으로 실체를 구성하고 기억하는 기저에 기록이 있으며, 기록으로 담겨진 개별 행위들을 구체적 매체와 같은 기호를 통해 표상해 낸다.<sup>32)</sup> 따라서 기록의 생산과 조직을 통한 기록화, 의미화는 사물의 생성만이 아닌 기호의 생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기호작용과 기호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의 재현으로서의 기록(record), 아카이스트와 이용자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카이브즈가 기억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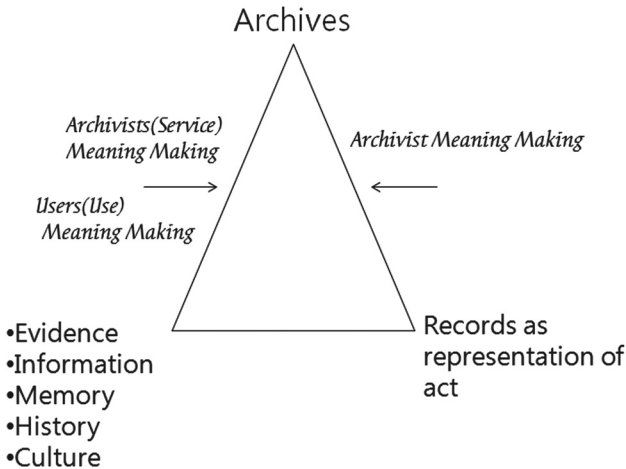
30)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김운찬 역, 『일반기호학이론』, 열린책들, 2009, 251쪽.

31) 김주환, 앞의 책, 32쪽.

32) 최광호,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7-29쪽.

역사, 문화가 되는 기호작용의 관계에 대해서 노명환은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레코드-아카이브즈-증거/정보/기억/문화 기호작용 모형<sup>33)</sup>



즉, 기록이 사건에 대한 정보, 증거한 것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현물인 기록을 생산해 내며, 기록이 소비, 교환되는 과정에서 기호들을 배태한다. 이 때 재현된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과정에서 기록 조직화 과정이 포함되며, 이 기록화와 이용의 과정에서 새로운 메시지들이 발현되고 소통되고 남는다. 이 모든 기록화와 기록의 재현 과정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며, 기호작용으로 일어난다. 기록화가 시대의 현상과 가치를 도큐멘테이션 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것은 시대적 가치가 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

33) Meung-Hoan Noh,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텍사스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주최 제5회 AERI 발제문(2013.6.18.); 노명환, 『융복합 웹콘텐츠 헤리티지마케팅 발표문』, 2013.

이션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작용을 전제한 기호작용의 하부 과정임을 주시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성공적 의미전달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의미작용은 자의성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전달이나 해석의 내용도 포함한다. 따라서 기록화는 기호교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해 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공유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와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전적으로 기호학적 입장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에코(Umberto Eco)는 다시, 사회적 작용력(social force)으로서의 기호를 연구하는 것이 기호학의 주제라고 말한다.<sup>34)</sup> 따라서 기호학의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호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것
2. 기호와 코드의 결합 방식에 대한 것
3. 기호작용(semiosis)에 대한 것

흔히 세미오시스라 불리는 기호작용은 기호와 의미가 구조를 갖춘 후 기호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는 심리공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데올로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때의 기호 조직 원리는 앞서 밝힌 바대로 코드의 결과로서의 텍스트<sup>35)</sup>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텍스트가 신문, TV, 영화, 광고, 잡지, 문학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 내러티브(narrative), 이미지(image), 은유(metaphor), 환유(metonym), 신화(myth)로 구성된다.<sup>36)</sup> 요약하면, 기호학의 정수는 기호가 일으키는 혹은 부여하는 의미작용에 관한 것이다. 기호의 표현과 내용이 서로 공유 가능하도록 의미를 생산해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학은 기호의

---

34) 김경용, 앞의 책, 14쪽.

35) 텍스트는 의미창출 가능성을 위한 해석에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 김경용, 앞의 책, 14쪽.

체계적 구조 위에서 기호의 소통과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때 전체적인 의미작용의 결정적 요소는 내부세계에 축적된 기호에 의한다. 즉, 기표란 그것에 연결시킬 적당한 기의가 없으면 의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양한 기의의 의미작용 고리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합성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호는 곧 기호작용이다. 특히, 기호작용 과정에서는 텍스트(text) 해석에 따른 '의미'의 문제가 발생한다. 텍스트는 그 어휘가 갖는 의미 그대로 '짜여진' 어떤 것을 뜻하며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의미한다.<sup>37)</sup> 따라서 텍스트 내에 작가의 의미가 내재하는 것이 아닌 독자가 어떤 분석틀로 어떻게 의도를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구조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작용하는 구조화를 통해 기술되는 것이므로 구조 자체가 가진 보편성으로 텍스트에 반드시 존재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무의미하다. 이보다는 텍스트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변형작용을 찾아내는 것이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소통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텍스트는 기록 좌표의 제도적인 실천만이 아닌 기록과 기억의 유의미하고도 역동적인 기호실천 안에서 해석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으며 언어를 통한 현실 재현이 일종의 환상이라는 기호학적 사유의 중심에는 자연적 언어가 아닌 기의를 통한 추상화 과정을 거쳐 기호가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는 데 있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의미 생산은 출처영역인 인지와 목표영역인 메시지가 서로 작용하여 투사됨으로써 송수신자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학의 연구대상은 가시적, 비가시적 대상이 지시하는 의미 이외에도, 그 대상과 의미를 연결하는 기호체계, 기호 생산 유통의 주체와 맥락

37)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한다』, 이숲, 2013, 96쪽.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어디에도 붙일 수 있는 열린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는 것은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이 아닌, 여러 짜임새를 관찰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의 관계성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기호학적 실천은 시대정신으로서 우리의 기억을 기술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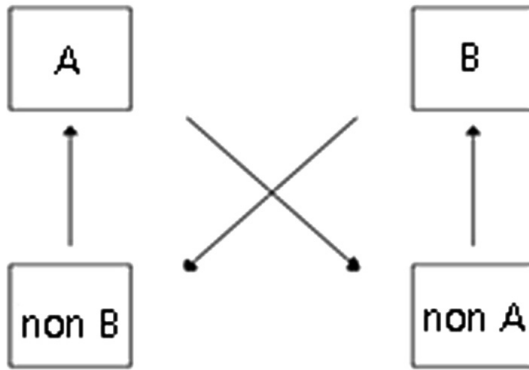
## 2) 기호학적 방법론

기호학 창시자 중 한명인 소쉬르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호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기호학이라 정의했듯이, 기호학적 방법론의 중요한 전제는 인간 삶의 현상에서 재현되고 표현되는 행위의 매개물이 바로 “기호”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호학이 방대하고 심대한 명제를 갖고 발전하면서 기호학적 방법론은 기호의 어떤 작용점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지만, 인간 행위와 사회 문화의 매개가 기호라는 것은 동일한 관점이다. 다만 어떻게 그 구조와 의미작용을 알아내는가에 있어서 다양한 역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쉬르의 모토 이래로, 기호학적 방법론은 언어기호학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언어기호학 또는 기호 언어학은 언어를 기호학적 프레임에서 연구함으로써 다른 기호체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기호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바르트를 중심으로 언어활동 혹은 담론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텍스트기호학으로 발전해 나갔다. 텍스트기호학은 방브니스트(Émile Benveniste)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을 신화 분석에 도입한 것이었다. 레비 스트로스(Lévi-Strauss)와 같은 기호학에 비언어를 적용한 인류학자들은 구조주의 방법으로 신화 구조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레마스(Algirdas Greimas)를 중심으로 한 파리학파는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의소를 본격 받아들여 구조의미론으로 발전시켰다. 그레마스는 “하나의 의미실질 혹은 의미범주(Semantic Categories)가 분절된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의미실질이든, 어떤 의미범주든 이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38)</sup> 라고 전제하며, 의소, 분류소, 의미의 동위소,

의미의 기본 구조 같은 개념을 의미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학적 문제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sup>39)</sup>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Semiotic Rectangle) 분석방법은 A하나에 4개의 의미를 갖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대립, 모순, 함축관계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 3〉 그레마스(Algirdas Greimas)의 기호사각형



예로,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에서 선별적 기록과 맥락 단절로 드러내는 허위의 구도에 대해서 허위(A)-허위가 아님(non A)-진실(B)-진실이 아님(non B) 같은 구조로 전시 내러티브를 설명해낼 수 있다. 한편, 서구와 다른 인문학적 전통에서 시작한 러시아 기호학자들은 먼저, 문화가 인간 사회에서 조직화된 범주로 규정되는 학문을 “문화기호학”이라 칭하고 문화의 기본 단위를 텍스트로 보았다. 특히 러시아 기호학의 타르투(Tartu)학파의 중심인 로트만(Yuri Lotman)은 문화를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그룹에 의해 취득되고 유지되면서 전달되는 정보의 총체”라고 규정하며, 문화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38) 박인철, 『과리학과 기호학』, 민음사, 2003, 230쪽.

39)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94-198쪽.

인간과학에서 시급하고 복잡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기호의 체계로 나타나며 자신이 가지는 모든 텍스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언어와 달리 문화를 기호학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한 가설은 문화가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매커니즘이 된다는 데에 있었다. 방법적인 성격에 있어서 1체계는 언어 모델을 전제로, 2차 모델링을 문화 일반에 두어 그 표현형태의 의미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호체계의 역동성에 역점을 둔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은 문화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되었다. 문화의 변화, 적응 능력은 메타언어와 모든 문화에 내재하는 번식 경향이 상호작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번식 경향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불완전함을 보상하려는 요구와, 문화에 의해 습득되고 계속 늘어나는 정보를 진행하고 순환시키려는 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기호학적 방법론에는 또한 사회학과 기호학의 융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회기호학적 접근 방법이 있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교환, 표현, 상징성, 가치 등이 인간의 사회적 질서의 본질적인 성분으로, 인간의 사회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호들을 창조, 교환,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호학은 본디 기호작용에 대한 일반적 연구로, 온갖 종류의 형식을 취하는 의미의 생산, 재생산, 수용, 유통의 과정과 효과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기호학은 일차적으로 인간적 기호작용에 관심을 갖되 그것의 근원, 기능, 문맥, 효과에서 특히 사회적인 현상에 중점을 두는 영역이다. 즉, 사회기호학의 대상은 모든 기호학적 형식들의 전 영역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의미”들과 관련된다.<sup>41)</sup> 이러한 해석과 분석을 통한 기호학적 텍스트와 기호실천들은 개별적 주체들이 모인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역사의 서로 다른 시기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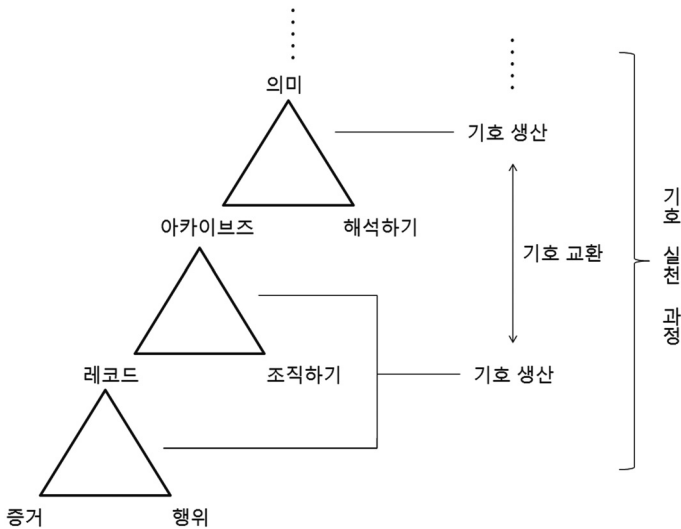
기록의 기호학에 있어서 기록과 기호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40) 김치수 외, 앞의 책, 224-240쪽.

41) 김치수 외, 앞의 책, 241-255쪽.

기록의 생산과 의미화 과정에서, 기록의 소비와 공유 과정에서 기호로 소통되고 있다. 기록 자체가 이미 기호적인 것이다. 기록이 생산되고 조직, 이용, 활용되는 과정의 문화적 맥락에는 다양한 기호적 체계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때 지각편린이 사회적인 것으로, 즉 교환 가능한 지각으로 재생산 해내는 것이 곧 기호화하기이다. 기록이 생산, 포착되는 순간부터 기호가 생산되며 이를 다시 아카이브에서 기록화, 조직화 하는 과정에서도 생산된다. 아카이브에서 이용, 활용의 영역으로 지평이 확장되어 기록이 소비되는 과정에서도 기호가 교환되며 기호가 실천되는 형태다. 이때에 의미생산체계는 해석하기를 통해 무한히 기호 생산이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퍼스의 무한 기호현상(unlimited semiosis)에 대입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그림 4〉 기록의 기호실천 모형<sup>42)</sup>



42) 조민지, 앞의 논문, 2014, 44쪽. 퍼스의 삼원적 관계 모형을 전제로, 김주환(앞의 책)이 제시한 기호생산 삼중 삼각형 모델을 참고로 하여 기록의 의미화 과정에

무엇보다도 기호는 일정한 담론, 텍스트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속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미 그 어휘 속에 주체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호와 실천은 독립적이지 않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호계이고 그 이질성으로 유표화 되는 것이다. 즉, 기호학적 차별화의 1차적 매커니즘 중 하나는 바로 '경계'이며 경계는 1인칭 형식의 바깥 한 계로 정의될 수 있다.<sup>43)</sup> 이렇듯 기호학적 공간은 무수한 경계들로 절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각 메시지는 여러 번 번역되고 변형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은 그것에 의해 지속적으로 커진다. 모든 경계, 혹은 필터의 기능이란 조절하고 거르고 외적인 것을 내적인 것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무릇 과거의 '사건'이란 표현되는 것이며 그 의미는 실존 보다는 내속하는 것이다. 시공간 텍스트에 의한 의미생산, 뒤따르는 기호실천에 의한 의미의 소비는 변형과 새로운 경계의 적용을 통해 기호체계로서의 증강된 문화화 작업 속 일상 신화에 편입 가능하게 된다.

바르트(Roland Barthes)에 따르면, 오늘날의 신화는 곳곳에서 발견되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기호를 통한 신화적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게 의식에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언어로서의 기호가 들춰내어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흡수되는 불확실성의 정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매커니즘에 관한 것이다.<sup>45)</sup> 물론, 문화 해석으로서의 구조주의적 해석은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게 마련이지만, 어차피 해석은 언제나 오역이며 해석된 사물이나 단어는

---

적용해 본 하나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퍼스의 무한 기호현상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호현상의 해석체가 퍼스나 김주환의 모형처럼 또 다른 기호현상을 위한 기호가 된다.

43) Yuri M. Lotman, *Universe of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유재천 역, 『문화 기호학』, 문예출판사, 1998, 189쪽.

44) Yuri M. Lotman, 앞의 책, 211쪽.

45) 김경용, 앞의 책, 191쪽.

언제든 다시 해석 가능하다.<sup>46)</sup> 새로운 의미 창출은 무수한 계열화의 차이, 즉 계열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록의 기호작용에서 의미화 과정은 지속적인 의미의 유동성을 의미한다. 이는 곧 기록이 가진 역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기록 명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개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투명한 기록 관리, 도덕적 판단과 정답을 추구해온 기록행위가 진실과 허위의 대립 구도에 있었다면, 그 진실이 기호적 실천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의미생산체계’에 대한 이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진본과 원본이 교착하여 만들어내는 진실과 허위의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과 의미, 그리고 그 의미적 효과들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기록 아카이빙이 가진 엄정성 속 유능한 보존능력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한계는 기호실천에서 수렴가능하다. 기록 아카이빙의 선별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된 “집단의 비유전적 기억”<sup>47)</sup>은 기호의 의미화 과정 조망을 통해서라도 아카이빙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기록의 기호학이 가진 핵심은 기록 관리학이나 기록 행정학이 추구해온 기록 아카이빙의 경계 밖 ‘의미’의 아카이빙을 전제한다. 기록만이 아니라 기록의 의미화, 의미의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들에 대한 언어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기록과 기억의 기호작용은 기록의 활용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의미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기호실천 과정에서 매개되어 재현되는 과거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원에게 역사적 책임 의식에 관한 감각을

46) Roland Barthes, *L'empire des signes*, Editions du Seuil, 2005, 김주환 외 역, 『기호의 제국』, 산책자, 2008, 165쪽.

47) 문화기호학자 로트만은 문화를 금지와 제한들의 일정한 체계로서 표현되는 집단의 비유전적 기억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어떤 역사적 경험이 기억되기 위해 다른 기억과 차별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기억될 사실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해당 문화의 기호학적 규범을 기초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Yuri M. Lotman, *Семносфера*, 2000, 김수환 역, 『기호계 - 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8, 68-72쪽.

형성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 5. 기호실천의 함의

### 1) ‘커피데이블’

사랑하는 연인에게 요즘은 왜 통 연서를 보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가 연애편지 수집광이기 때문인가. 수집벽이 있어서 연애편지를 다시 쓰라는 것일까. 우리는 하라는 연애는 하지 않고 연애편지 수집광으로 수집벽을 자랑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빅브라더 사회라고 한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은 감시된다. 어느 날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다가 빅 브라더 사회의 빈틈을 보았다. 조지 오웰은 빅 브라더 사회에서 아키비스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기호실천의 함의를 읽을 수 있었다. 주인공의 모든 일상은 감시된다. 그가 처한 현실은 ‘일상의 노예’였다. 그러나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했다. 기록과 사랑이라는 기호작용은 그가 숨 쉴 수 있는 통로였다. 자유는 그 통로에서 불어왔다. 기록할수록 자유는 커졌고 사랑할수록 자유의 가치는 커졌다.

현재, 기록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기력의 폭풍 같다. 제도적으로는 기록전문가이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다. 기록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권력자의 지배를 받으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왜 이려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크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다보면 현재 기록전문가의 일상은, 마치 제도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일상의 노예제에서 살았던 1950년대 미국 흑인들의 비참한 일상을 떠올리게 된다. 기록은 지금 ‘일상의 노예제’에 갇혀 있을까? “인간이 사회혁명을 통

해 했던 도약은 ‘~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 1960년 그린즈버러에서 네 명의 흑인 젊은이들은 올위스 간이식당에 들어가 응당 대접을 받아야 하는 양 행동했다. 개리슨과 필립스는 명백한 상식을 벗어나, 노예제 문제에 무관심한 자기 종족들을 일깨워 노예제에 대항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sup>48)</sup> 이 글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견고하게 지탱되던 ‘일상의 노예제’를 무너뜨린 ‘~인 것처럼 사건 : as if 사건’에 대한 단상이다.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상징할까? 흑인들의 점거농성(흑백분리정책으로 흑인들이 앉지 못하는 식당이나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주문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농성)은 일상의 노예제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실제 발바닥이 찍히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구석구석까지를 장악하던 억압적 권력은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또는 새로운 형태로 변신해야 했다. ‘역사는 아래로부터 만들어 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하워드 진은 억압된 사람일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듯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가혹하게 짓누르는 현재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현재에 구속된 것처럼 행동하기 보다는, 과거의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현재에 구속된 것처럼 행동하기 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한 미래를 향해 ‘~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흑인의 역동성은 제도적인 해방이 아니라 문화적인 해방에서 시작되었다.

해방은 상상의 힘(as if)이 좌우한다. 젊은 쥐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 다.<sup>49)</sup> ‘젊은 쥐 욕망’을 품은 젊은 쥐에게: 일기를 수집하러 다니지 말

48) 하워드 진, 앞의 책, 258쪽.

49) 미국 의학자들이 쥐실험을 했다고 한다. 20대에 해당하는 젊은 쥐의 피를 70대



자. 광일일기를 쓰자. 옷을 주지 않는 아내의 안락한 품을 떠나야 한다.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다. ‘서고땃줄’을 끊으면 일상이 반겨줄 것이다. 일상에서 기호실천을 해보는 거다.

‘커피테이블’을 말해본다. 소규모 공동체를 방문해 밥을 같이 먹자. 차를 나눠 마시자. 대화를 나누자. 기록모임을 같이 하자. 기록세미나를 하고, 기록워크숍을 하고, 기록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기록과 무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삶과 욕구에 귀 기울이자. 놀랍게도 ‘보통사람들’은 기록에 관심이 많다. 기록 수집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의 주체이기를 바란다. 이런 적극적인 상황을 기록화 해야 한다. 그러니 기록물을 빼오듯 수집하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점거농성을 하자. 문서, 사진, 기억, 경험, 욕망, 그 무엇이든 가져오라. 저기 빈 테이블은 아카이빙 테이블로 쓰자. 커피를 올려놓자. 이미 존재하는 과거 기록물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래를 아카이빙 하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안았다. 한 번에 한 군데에서, 몇 개월에 걸쳐 몇 년에 걸쳐, 점거농성을 하자. 여행계획 세우느라 세월 보내지 말라. 여행계획은 여행지에서 세워야 한다.

점거농성(2012~2013년 느티나무도서관 기록워크숍)을 소개한다.<sup>50)</sup> 전

---

에 해당하는 늑은 쥐에게 투여했더니 늑은 쥐의 뇌와 장기가 다시 젊어졌다는 연구결과(한겨레, 2014.5.5)가 있다.

- 50) 필자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방문해서 기록워크숍을 하고 있다. 방문하는 곳은 도서관(민간, 공공), 생협, 인권단체, 대안학교, 지역과 일상의 다양한 소모임 등이다. 느티나무도서관 기록워크숍은 한국외대 대학원의 ‘기록의 정리와 기술’ 수업의 실습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방식은 필자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워크숍을 운영하고, 기록대학원생들과 느티나무도서관 직원들이 팀을 나눠서 느티나무도서관 기록물(종이, 사진)을 정리하고 기술했다. 느티나무도서관 입장에서는 “내부 + 기록전문가(기록대학원생 포함)의 협력적 방식”으로 기록역량을 확

모를 말할 수 없어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묘사하는 것(새로운 기록탁자)으로 대신한다. 느티나무 기록탁자에는 특이하게도 커피가 놓여 있었다. ‘커피’는 마시는 커피이거나 음료였고, 그것을 매개로 한 대화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냥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꼭 커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커피숍이든 집에서든 ‘커피’를 앞에 두고 대화를 시작한다. 이것이 일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셔야 고독에 빠지고 글을 쓴다. 커피는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커피는 그 동안 아카이브 분야에서 배척되었다. 이상하게도 전문적인 분야로 가면 일상적인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 전문적인 것, 일상적인 것, 이렇게 두 개가 섞인 보다 원숙한 문화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기록작업에서 커피가 배제되었던 데에는 이유가 물론 있다. 그러나 느티나무 아카이빙이 이런 금기를 깨고 커피를 탁자 위에 올렸다. 효과도 컸다고 본다. ‘커피가 놓인 기록탁자’는 특이한 사건이다. ‘상징적 커피효과’에 대해 말해본다.

첫째, 커피의 등장에 대해: 동일한 것을 수 천부 수 만부씩 찍어낼 수 있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는 커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하물며 유일원본의 특성을 지니는 기록작업장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기록 중에는 국민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신분기록도 많다. 이런 기록이 유실되거나 손실된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록이 훼손되거나 유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보하면서 자생적으로 기록워크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 소개되는 기록워크숍은 이런 자생적 기록워크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느티나무도서관은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록워크숍을 열면서 공개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경향각지에서 10여 명이 참여했다. 필자들은 이 기록워크숍에 기록전문가로 참여했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런 일련의 (일상패러다임 속 기호실천)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커피는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금지된 것이며 금기시 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느티나무 기록탁자에는 버섯이 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부주의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 느티나무도서관은 아카이빙이 아니어도 애초부터 커피검열이 없었다. 오히려 느티나무도서관은 이런 검열-지시-부자유함이 자유로운 독서를 방해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기록탁자 위에 커피가 놓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철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같은 공공기관 기록작업장에는 일체의 음료가 금지된 기록탁자가 놓인다. 이것은 기록의 수행범위를 좁히는 어떤 금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와 대비적으로 느티나무 기록작업장은 기록의 수행범위를 넓히는 ‘이브의 사과’를 상징한다. 이브의 사과는 신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로의 전회를 상징할 수 있다. 고된 노동이 있고 신의 저주마저 있지만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약한 아담은 감히 넘보지 못한 금단의 벽을 이브가 넘었다. 이브의 사과처럼, 느티나무 커피는 뭔가 금기를 깨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둘째, 커피, 기록읽기, 대화의 네트워킹에 대해: 벼의 등장을 네트워킹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이라는 인간의 활동은 각기 따로 살던 생물을 네트워킹화 하는 것입니다. 벼도, 오리도, 청둥오리도 돼지도 닭도 원래는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물들을 일정한 공간에서 공생시키는 시스템이 (전통)농업입니다. 생물을 네트워킹화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물들도 동시에 그 일원이 되어 네트워킹화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미생물 가운데 어떤 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호모균, 국균, 청국균 등입니다. 그들은 술이나 된장, 청국 등의 발효식품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 그런데 네트워킹화 한 미생물 가운데는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전형이 인간들이 병원균이라 부르는 미생물입니다.”<sup>51)</sup> 영화 「아메리칸 쉐딩」에도 훌륭한 쉐딩 네트워킹이

등장한다. 작은 마을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퀼트작업을 한다. 여기에 젊은 대학원생이 들어온다. 손녀 대학원생은 진로, 사랑, 미래 등의 불투명함으로 젊음의 신열을 앓고 있었다. 할머니들도 긴 세월 살아오면서 각자 이런 신열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손녀에게 다정히 말해준다. 고민하고 있구나, 정당하지,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단다, 그런데 말이다, 선택의 순간에 따라야 할 선택적 규칙이란 없단다, 만약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이자 즉흥성이다. 즉흥적이지 않은 선택이 너에게 고통을 준단다. 이런 말은 심리적으로 받으면, 라깁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자기욕망에 충실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 퀼트작업은 물리적인 퀼트작업이기보다는 일종의 의미작업이었다. 그것은 여러 개의 독립된 것들이 서로 네트워킹 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탄생했다.

느티나무 아카이빙도 기록네트워킹의 맥락에서 볼 수 있었다. 사실 커피, 기록읽기, 대화는 각각 별개의 사건이다. 공공기관 작업장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기록을 읽는 것은 맞춰야 할 작업처리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거나 금기시된다. 대화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뒤풀이 시간에나 잠시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기계작업이다. 자유로운 대화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이 있을 뿐이다. 머리를 맞대며 협의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리 흔치 않은 장면이다. 기록과 전투를 해야 한다. 기록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기록을 대량처리 상황에서는 확실적인 표준 작업처리절차가 필요하다. 처리속도가 빠를 수 있다. 기록의 대량처리시스템은 다수의 비정규직 기록노동자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마치 1970년대 방직공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줄지어 앉아서 옷을 만들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는 노동자마저 사라져갈 것이다).

---

51) 아케미테 테즈오, 『폴무학교 후원회보』(2012년 10월~2013년 1월), 19쪽.

이에 비해 느티나무 아카이빙의 기록탁자 위에는 아메리칸 퀵팅방식의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커피, 기록읽기, 대화가 네트워킹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상황 하나 하나가 탄생했다. 커피를 마시고 기록을 읽고, 서로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기록을 읽을 수 없었고, 기록을 읽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왜 기록작업을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지난 10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런 자유로운 대화가 있었기에 기록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려는 욕구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공공기관 아카이빙 테이블, 분업화된 기계작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것이 다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도 매일 야근을 해야 하기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빠의 역설처럼, 휴가를 가서 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대인의 모순처럼, 공공기관 아카이빙 테이블에는 이야기가 사라졌다. 이것은 기록의 자기소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를 말하면서 노동자가 자기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기록작업을 하면서도 기록노동자들은 기록으로부터 소외된다. 누군가를 위해 기록작업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른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조직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철지난 사고를 가진 사람도 드물다. 누구를 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느 날 아침 벌레가 된 자기모습을 볼 것이다. 벌레가 되는 순간이 위험하다.

밥상을 차려 지인들을 불러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저녁식사는 자기소외가 없다. 느티나무 아카이빙 테이블의 기록 네트워킹에도 자기소외가 없었다. 느티나무 아카이빙 테이블에서 펼쳐진 네트워킹은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 기록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말해주었다. 여기에서 활용은 나만 활용해야지 하는 폐쇄적 활용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비밀기록은 이런 폐쇄적 활용의 상징적 사건이고, 아직 기술되지 않아 그냥 방치된 기록도 폐쇄적 활용의 또 다른 단면이다. 커피, 기록읽기, 대화라는 기록네트워킹이 있는 한, 아니 새로운 독립요소들의 또 다른 네트워킹이 있는 한, 기록은 개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최하는 측에서는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외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었다.

만약 분업화된 사업패턴이 전문분야의 룰(표준)이라는 이유로 이 자그마한 도서관(소규모 공동체)으로 이식되었다면, 말하자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하류현상에 의해 기계분업이 이식되었다면, 아카이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을 돈도 아니고 강제적인 협박도 아닌 상황에서 누가 하겠는가? 어떻게 부산에서 수지까지 매주 올 수 있었겠는가? 설사 가능했다고 해도 어떤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구호를 외치며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킹의 원리를 접목한 것은 일종의 ‘문화투쟁’이었다. 기계문화에 대한 거부이거나 투쟁이었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문화제작의 일환이었다.

농업 이전에도 벼는 존재했고, 이야기와 무관하게 켈트작업은 진행된다. 농업은 벼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킹을 만들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2천년 넘게 이어진 삶의 양식이었다. 20세기에 책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화 중에는 독서모임이 있다. 독서는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고 삶을 엮어가는 작업이다. 기록작업 이전에도 기록은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네트워킹을 통해 존재하게 된 기록에는 하나의 문화가 더붙어 왔다. 이제는 기록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고 삶을 엮어가는 기록작업도 가능해졌다.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처리되는 기계작업이 하나의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독서의 탄생처럼, 기록의 탄생이다. 일상의 기록은 국가의 기록과 탄생방식을 달리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역사의 기원이다.

하워드 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문화투쟁이다. 일상아카이빙은

일상의 노예제에서 역사를 시작한다. 일상의 노예제에서 핵심은 제도 개선이 아니다. 문화투쟁이다. 일상-기호패러다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서고땃줄을 끊고 일상에서, 일상을 기록하자. 서고에 포획되어 있는 기록은 해방되어야 한다. '서고땃줄'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땃줄을 끊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없다. 우리는 '서고 없는 기록'을 상상해야 한다. 점거농성 실천을 해야 한다. 기호실천을 하는 것이다. 기록이 본디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을 윤회시키기 위해서는 '서고땃줄을 끊고 기호실천에 나서는 기록의례'가 필요하다.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혁명만큼도 아닐지라도 기록 역시 삶이고 문화이다. 삶의 지평에서, 문화적 맥락으로, 기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풍요롭게 요리해야 한다. 일상아카이빙-기호실천은 우리 시대 문화투쟁에 속한다.

## 2) 새로운 기록픽션

과학의 역사는 픽션의 역사로 쓸 수 있다. 잠수함이 없던 시절, 『해저 2만리』(1869년)라는 과학픽션(scientific fiction)이 먼저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찾기 위해 실험이라는 과학픽션 안으로 들어간다. 비단 과학픽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이든 픽션이 없는 시대는 희망을 경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세기에는 사회주의라는 픽션이 있었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무상교육, 기본소득 같은 픽션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사회픽션이 필요했고, 사회픽션을 통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인류는 자연에서 시작했고 수렵채집으로 살았으며 입말과 몸짓만으로 소통했다. 그 후 인류는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문자를 발명해서 소통했다. 인류의 역사를 픽션의 역사로 보면, 도시-농사-문자는 거대한 픽션의 세계이다. 픽션은 지

어낸 것인데 인간과 함께 있는 것 중에서 지어내지 않은 것이 있을까? 픽션은 거짓말, 공상, 허상이 아니다. 문학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으로 전유되면서 픽션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픽션과 팩트를 구분하며 등장했던 근대역사학의 기획은 나르시시즘은 아니었을까? 픽션은 사실-진리의 대립어로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픽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지한 과업이다.

기록픽션은 우리가 시대에 새겨 넣는 '기록표시'(archival index)이다. 기록의 역사도 픽션의 연대기로 쓸 수 있다. 한 때는 '정보픽션'이 진공을 메웠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가 모이는 곳 국가기록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과연, 기록물에 정보가 있을까? 없다. 이것은 명백히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픽션이다. 문서는 글자와 사진으로 구성된 사물일 뿐이다. 우리는 '사물에 정보를 새겨 넣는 기록화'를 해 왔다. 귀신에 홀린 듯 '정보 홀로그램'으로 들어가 기록실천을 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기록을 구성해 왔다.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다. 하나는 기록에 손을 대는 내부작업(예: 정리기술)이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미지(image)에 손을 대는 외부작업(예: 기록관은 정보의 보고라는 사회적 인식)이었다. 흔히 전자는 기록실무로, 후자는 기록담론으로 이해가 된다. 지난 15년, 정보픽션이 기록공동체를 경작해 오지 않았나? 다만 한 가지, 정보 홀로그램이 지난 몇 년간의 물음과 개미실천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억은 '이야기형식'으로 소통되고 전송되는데, 기록공동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구술인터뷰 형식의 정보픽션'(기억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공정)이나 '일기를 수집하는 정보픽션'(기억이 일기에 있다는 환상)이 지배적이었다. 기억을 담을 그릇으로 정보픽션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내용을 담을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삶은 복잡하고, 다의적이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링크에 관한



고전적인 예시가 있다. 어떤 두 사람이 링크를 교환할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근육경련에 불과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이 정해진 문서서식에 맞춰 기안을 하듯이, 두 사람은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화적 코드에 맞춰 문화적 몸짓을 한다. 이런 언어행위는 관계, 분위기, 상황에 따라 근육경련은 다양한 맥락(열망, 우애, 공모, 조롱, 냉대, 갈망, 멸시 등)으로 펼쳐진다.<sup>52)</sup> 이런 이유로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해석하며 기록하는 것을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은 복잡성의 기록화 방식으로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삶은 인간이 처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그 해석들의 총체이다. 한편 복잡한 총체성은 문화로 이해된다. 그 동안 기록학은 이런 복합적 총체성을 다루지 못했다.

기호론적 접근과 인류학적 접근이 만날 수 있는 지점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있다. “문화 개념은 본질적으로 기호론적이다. 막스 베버는 인간을 자신이 뿜어낸 의미의 그물 어딘가에 있는 존재로 파악했다. 나는 베버를 따라 문화를 의미-그물로 본다. 문화 분석은 법칙을 추구하는 실험적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해석이다.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불가해 한 듯이 보이는 사회적 현상들을 밝히는 작업이다.”<sup>53)</sup>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삶은 공공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르다.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와 퇴근 후 가족과 지내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때는 다른 인물이 된다. 전자는 증거의 문서화가 기본요소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생각, 감정, 욕구, 기억, 욕망, 경험, 정동(정서)을 읽고 해석하고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기호작용이다. “인간은 기호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며, 기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

52) 클리포드 기어즈,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13-20쪽.

53) 클리포드 기어즈, 앞의 책, 13쪽.

통을 하고,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을 꿈꾼다. 기호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고, 기호가 없는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기호이고, 인간의 생각이 미치는 모든 것에 기호의 땅이 펼쳐진다.”<sup>54)</sup> 만약 누군가 문서와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적 삶은 오히려 그 차이를 해석하면서 빚어지는 어떤 것, 요컨대, 의미를 다룬다.

새로운 기록픽션을 써야 한다. ‘의미픽션’은 어떨까? 의미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기록이 아니라는 점, 사물이 비록 정보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그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점, 인간은 결국 의미를 추구하기에 그 의미를 위해 기록과 연결된다는 점을 말한다. 기호학은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다. 기록학은 기록물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담론이기 때문이다(앞서 말한 인간과학). 기록물 보존의 물리적 조건을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문화적 조건을 다룬다. 이 때 기록물의 물리적 조건은 인간을 구성하는 문화적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인간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일상(가상세계 포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의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문화로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 물음은 결국 의미로 귀결된다.

5장에서 “기호학의 정수는 기호가 일으키는 혹은 부여하는 의미작용”이라고 했다. ‘의미픽션’을 쓰는 데에는 기호학적 방법론, 또는 기호론이 유용하다. “그 동안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투명한 기록관리, 도덕적 판단과 정답을 추구해온 기록행위가 진실의 허위의 대립구도에 있었다면, 그 진실이 기호적 실천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의미생산체계’에 대한 이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

54) 김경용, 앞의 책, 11쪽.

것은 더 이상 진본과 원본이 교직하여 만들어 내는 진실과 허위의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과 의미, 그리고 그 의미적 효과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기록 아카이빙이 엄정성 속 유능한 보존능력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한계는 기호실천에서 수렴가능하다. 기록 아카이빙의 선별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된 ‘집단의 비유전적 기억’은 기호의 의미화 과정과 조망을 통해서라도 아카이빙 할 수 있어야 한다.”<sup>55)</sup> 픽션을 쓴다는 것은 새로운 시리즈를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컬렉션과 단 하나의 시리즈만 있지 않았을까? 정보픽션 기술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리즈인 의미픽션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하면 왜 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 같다. 의미픽션은 이 왜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왜 기록하는가? 왜 쓰는가, 찍는가, 말하는가, 보존하는가? 왜 말을 하고 기억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노트에 기록하고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워드작업, 문서작업을 하는가? 인간은 사자와 달리 왜 기록이라는 것을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기록으로 밥 벌어 먹고 사람들이 답해야 한다. 기호의 등장은 기록물을 사물과 기호로 분리시킨다. 둘을 잇는 의미가 생겼다는 말. 결과보다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상황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권력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일상은 이런 사회적 작용력 (social force)으로서 기호가 지배하는 곳이다. 소통의 부재, 관계의 단절과 왜곡, 폭력의 무자비한 지배로 상징되는 시대를 깊숙이 기록해야 한다. 의미가 없어 보이던 기록물에 의미를 경작해야 한다. 이것은 삶과 직결된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의미, 기록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방법을 기록화 해야 한다. ‘의미 홀로그램’에 들어가면 삶의 의미, 기록의 의미를 아카이빙 할 수 있을 것이다.

---

55) 조민지, 2014, 46-47쪽.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기록 결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었지만 인간에 대한 물음은 기록공동체 내부에서 아직은 빈약하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사는지, 누군가와 엮이면서 인생의 파노라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기록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인류애적인 관심과 직업적 관심은 좀 다르지 않을까? 후자의 관심은 기록방법론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개, 옷을 주지 않는 아내, 겨드랑이에 돋는 날개, 변신한 벌레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상징한다. 기록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되었다고 말할 때, 기록이 삶의 본질적 측면(일종의 ‘문화적 DNA’)임을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록-기호의 관계를 매개로 풀어보았다. 인간을 위한 역동적 기록방식, 이것이 기호론이 제안하는 기록방법론이다.

## ABSTRACT

### Semiotic Approaches to New Archival Methodology

Lee, Youngnam · Jo, Minji

For the p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ctive seeking of archival practices outside of public institutions. For example, there is oral history archive which has an actual field of its own, community archive, archives of everyday life, cultural resources archive, digital archive, and post-modern archive with its discourse practical character. In this reading, such flow is organized through everyday paradigm, and examines new archival methodology that is suitable for it.

Through such critical mind, semiotic approach is taken and the need, direction and alternative of archival methodology is offered. Especially, archival methodology, which can be applied to archives is thoroughly observed. Also, the way how sign practices can be executed in the archival field is explained through specific examples.

Of course, it is clearly stated that this is an instance, and that it is an archival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public institutions. We hope this would be a discuss that would enabl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cords.

**Key words** : archives of everyday life, community archive, activism, post-modernism, sign, semiosis, semiotics